

2003 건설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용구 대림산업(주) 대표이사

“기술력과 품질, 안전이 곧 건설업 경쟁력의 근본”

“2003년 ‘건설의 날’을 맞아 모든 건설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다짐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림산업 이용구 사장이 지난 달 18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2003 건설의 날 행사에서 최고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971년 현장 건축 기사로 건설업에 입문한 뒤 최고 경영자에 오르기까지 이 사장의 경력은 매우 다양하고 폭넓다. 또 건설업에 정통하기 위해 거쳐야 할 모든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특히 1970년 초부터 시작한 오랜 기간의 해외 근무 기간 중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대한민국 건설업의 위상을 새로이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였으며, 외국 엔지니어링 및 건설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선진 기술 및 시스템,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기법의 국내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사장은 이렇듯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의 낙후성을 인식하고 EPC 체계의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왔다.

“기술력과 품질, 그리고 안전이 곧 경쟁력의 근본”이라는 이사장의 신념은 확고하다.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이 경쟁과 생존의 조건임을 강조하고 기술력 제고에 노력해 온 이 사장은 1980년 업계 최초로 설립된 기술연구소 조직을 대폭 강화하여 자체 연구 개발과 국내외 우수 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건설 기술 수준 향상에 진력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최장이며 세계 10대 해상 교량인 서해대교 건설에 ‘케이블과 비대칭 구조를 이용한 사장교 주두부 공법’을 개발 적용하여 건교부 신기술로 지정받는 등 60건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부가가치의 원천인 시공 조직의 원가 절감과 공정 관리의 효율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시공 합리화에 주력하는 한편, 공정 프로세스의 혁신을 위해 PMIS를 자체 개발, 현장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사내외적으로 축적된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계 최초로 온라인 건

설 기술 컨설팅 사업(www.icon-stech)을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타당성 조사,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보수에 이르기까지 구축물의 전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기술 컨설팅을 시작함으로써 관계 기관, 유관 단체 및 업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향후 우리 건설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솔루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장은 아울러 업계 최초로 변화와 혁신을 지향하는 지식 경영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21세기 건설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성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업체보다 한 발 앞서는 ERP, EPC 전자 입찰 시스템 도입 및 가정 정보화 시스템 구현,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건설업의 정보화를 주도하는 경영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업의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기업 윤리 강령을 선포, 실천함으로써 윤리 경영이 기업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을 보여온 이 사장은 장학재단 사업 등을 통해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인재 육성과 사회 문화 발전에도 공헌하고 있다.

한국재무경영대상 종합대상, 대한민국 건설대상 기업대상, 한국리모델링대상, 마케팅 대상 등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경영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 사장은 연세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한 뒤 32년 동안 건설업 외길을 걸어온 건설 전문 경영인이 다. 

김희경 · 기자 · khk@cerik.re.kr